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올해 군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사고로 군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8월에 또 다시 해군에서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비판의 수위가 한층 격렬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사건·사고, 군만 비판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혹이 제기되는 등 비판의 열기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전개됐다. 비난의 화살이 1차적으로 군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연 군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혹도 팽배해지고 있다.

회 전반에 대해 반문해봐야 할 게 있다. 군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과연 군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교육 등은 잘 이뤄지고 있어 군의 사건·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 우리 사회는 모든 게 정상적인데 군에만 들어 가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할 때 어느 단계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불량품이 나오게 된다.

단과 광범위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돼 져야 한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군의 문제이며 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군에만 책임을 묻고 비판하면서 단기간에 마련된 대책이 만족스럽고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설

한풀 꺾인 지역감염, 언제든 변질 수 있다

지난 8월은 코로나19가 제주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8월 한달간 누적 확진자 수가 860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월별 확진자 중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광복절 연휴가 긴 중순엔 하루에 가장 많은 64명이 나왔다. 다행히 본격 휴가철을 맞으면서 당초 우려했던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 전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부분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돼 빠르게 퍼진 것이다. 또 집단감염 확진자 중 최초 감염자(지표환자)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달 26일 23명, 27일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28일(13명)부터 10명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1일 11명, 2일 10명에 이어 3일 8명, 4일 7명 등 이틀째 한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열린마당

양성평등...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고 인 석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열린마당

양성평등...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게 됐다. 매년 양성평등주간에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도 그동안 각종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정말 끈질기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모든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뉴스-in

원 전 지사, 공격적인 유튜브 마케팅 눈길

정책 드라마 제작해 연기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격적인 유튜브 마케팅에 나서 눈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해 정책 드라마 '홍의 눈물'을 공개하고 교육 관련 정책, 언론중재법을 빚던 '신문고 중재법' 등 풍자를 통해 정부 여당을 비판.

올해 본청부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할 방침.
한 관계자는 "시민-행정 간의 소통창구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멀티미디어 문자서비스 운영

○...그동안 문자로만 지원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샀던 제주시 민원처리 결과 서비스가 앞으로는 멀티미디어(사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시는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멀티미디어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혜기자

제주 렌터카 감차계획 '제대로 하자'

교통체증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심지와 평화로·변영로 일부 구간 등에까지 번진 교통체증은 하수, 쓰레기문제와 함께 미래 제주의 3대 '악재'로도 꼽힌다. 도가 교통체증의 주 원인 렌터카 공급계획을 재추진, 연내 결턴 내기로 해 주목된다. 과거 '소송전'에서 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한다.

수급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시행과 차량총량제 기조 유지 영로 일부 구간 등에까지 번진 교통체증은 하수, 쓰레기문제와 함께 미래 제주의 3대 '악재'로도 꼽힌다. 도가 교통체증의 주 원인 렌터카 공급계획을 재추진, 연내 결턴 내기로 해 주목된다. 과거 '소송전'에서 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한다.

부 고
강명조(前 제주·서귀포 경찰서장)
어머니 나라정씨 성월(마리안나·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4일 06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6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7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 장례미사: 오전 10시 노형성당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저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을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오래래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장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문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는(한라봉), 서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사, 세미늘, 금금당자, 아미나스, 미니문,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심 농촌진흥청 통상시생계자로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